

中原鳳凰里磨崖半跏像과

佛·菩薩群

鄭 永 鎬

一、發見調査 경위

충청북도 中原郡 可金面 鳳凰里에서 磨崖半跏思惟像을 비롯하여 菩薩群과 磨崖如來坐像 등을 發見調査하였기에 새로운 資料로 소개된다.

一九七八年 十二月 一日 忠州의 몇몇 文化財愛護人들이 모여 「藥城同好會」를 만들어 忠州·中原일대의 鄉土文化를 연구한다기에 現地를 갔었다. 오후 늦게 도착하였으나 柳昌宗會長을 비롯하여 金豊植、金禮植 張俊植氏 등 여러 同人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었다. 이날밤 모임에서 그동안의 여러 遺蹟調査內容을 서로 報告하고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며 앞으로 보다 여러곳의 많은 遺蹟遺物을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는데 筆者의 의견도 助言이 되었으며 한편 그 대상지역들은 필자의 이 地方 조사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一九六七年부터 충청북도 일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一九七五年度의 忠州·中原地區조사에서 몇곳을 踏査한바 있으므로 이 고장은 各面地域까지 항상 머리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몇곳의 遺蹟을 말하는중 仰城面에 石佛一座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上·中·下臺의 完全한 臺座를 갖추고 있기에 날이 밝으면

金禮植氏의 안내로 實物을 조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金禮植氏는 「藥城同好會」의 創立主役이었던 바 中原郡 文化公報室長이었으므로 管内의 遺蹟遺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十二月二日, 金室長과 함께 仰城의 石佛坐像을 조사하기 위하여 忠州를 떠났다. 嚴政面의 牧溪洞에서 漢江을 건너(牧溪橋) 可金面 可興里로 들어가는데 金室長이 또 다른 하나의 石佛이 仰城가는 중간에 있다고 하여 車를 멈추게 하였다. 즉 可興里 다음 洞里인 鳳凰里에 위치하였는데 큰 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山도 험하지 않고 岩壁에 陽刻한 磨崖佛이라는 것이다. 얼마전에 이 佛像이 조사되어 高麗時代의 石佛이 발견되었다고 報道된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큼직한 체구에 가슴과 양쪽 어깨가 당당한 磨崖佛이라는 데 우선 마음이 끌리고 더우기에 佛像의 위치가 漢江流域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여 金室長에게 仰城의 石佛보다도 이곳 鳳凰里의 佛像을 먼저 가보자고 하여 車를 鳳凰里로 돌리게 되었다. (圖一、二참조)

鳳凰里 안골 部落 北쪽 山중턱 가까이에 있다고 하며 金室長이 앞장서 올라가고 필자는 바랑을 질머지고 그 뒤를 따랐다. 몹시 가파른 山비탈의 甕돌을 제치고 가랑잎을 헤치면서 한참 올라가는 데 너무나 험준하고 雜草木이 많이 우거져서 길이 없는 것 같아 앞서 올라가는 金室長에게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니 그도 그렇다고 하며 야단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金室長은 내가 먼저 올라가 佛像을 찾고 길을 찾아 따라 내려올 터이니 이곳에서 잠깐 쉬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럴수가 없어 같이 磨崖佛을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金室長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十二月이었으나 그리 춥지는 않았으며 전날밤에 내린 눈(雪)으로 온통 山野가 눈부실정도 였는데 이곳만은 南向에 가파른 비탈이고 雜草木과 甕돌이 엉켜져 있어 눈은 없었다.

천천히 이리저리 나무를 잡고 혹은 바위를 붙잡으며 얼마쯤 또 올라갔다. 金室長은 한참 앞서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그 자취만이며 필자는 그 뒤만 따르고 있었다. 절벽진 바위에 몸을 의지하는 듯 밀착시키면

서 조심스럽게 바위 모서리를 잡고 발을 옮기려는데 왼손손에 잡힌 바위에서 이상한 촉감을 느꼈었다. 부드러운 느낌에서 어떠한 彫刻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른쪽몸을 岩壁에 붙치고 왼손에 잡혔던 바윗돌을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한 발(足)의 彫刻이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발인데 그렇다면 이 발이 무슨 발이며 이 岩壁에 무엇이 彫刻되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덮혀 있는 가랑잎과 翎鬚들을 헤치고 제치면서 살펴 보았다. 순간 깜짝 놀랐다. 가운데 思惟形의 半跏像을 모시고 그 양 옆으로 脇侍菩薩들을 배치한 磨崖造像群이 아닌가. 그리하여 필자가 잡았던 바위 모서리는 半跏하여 왼쪽 무릎위에 올려놓았던 오른쪽 발부분이었던 것이다. 가랑잎과 잡초 翎鬚들을 제거하면서 岩壁을 정리하였



圖1 鳳凰里磨崖佛·菩薩群 位置圖

던바 그 옆으로는 또 하나의 佛像과 供養像이 있어 모두 八軀의 佛·菩薩像이 彫刻되었음을 확인하였다(圖 三참조)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 시간이 꽤 흘렀던지 金室長은 보이지 않았다. 必히 金室長이 이 앞을 지났을때 못보고 올라간것이 분명한것 같아 큰소리로 金室長을 불렀다. 몇번 부른 뒤 왼쪽에서 대답하기에 여기 佛像이 있으니 이리로 내려오라고 하였더니 金室長도 佛像을 찾았다 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필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金室長이 찾았다는 佛像이 애당초 목표로 했던 것이고 필자가 더듬고 있는 이 岩壁의 佛·菩薩群은 뜻밖에 눈에 뜨인 운흥은 새발전푼이었던 것이다. 잠시후에 金室長이 찾아왔다. 岩壁 주변을 살펴보고 필자를 보더니 아까



圖2 磨崖群앞에서 東쪽 漢江을 바라봄

분명히 이리로서 올라갔는데——하며 고개를 가우동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손수건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壁面의 먼지를 털고 넝쿨줄기를 제거하면서 가랑잎을 모두 제쳤다. 岩壁의 佛·菩薩들이 모두 전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마련한 香燭이 없었으므로 맨손으로 정성껏 마음만 가지고 佛·菩薩에 四拜하면서 禮를 올렸었으니 中原 鳳凰里의 磨崖半跏思惟像과 佛·菩薩群은 이렇게 하여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후 十二月十日의 再調査時에는 檀國大史學科의 教授와 學生들 그리고 東國大의 黃壽永博士 등 二十餘名이 참가하였는데 이때에는 平地로부터 岩壁까지 올라가는 길을 닦고 또한 岩壁 앞을 多少 넓게 整地하여 調査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였으며 各尊像의 下端部가 묻혀있는 부분의 수습도 아울러 진행하여 전모를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一九七九年 五月六日의 三次調査時에는 불편함이 없이 손조로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二、磨崖半跏像과 佛·菩薩群

앞서 말했듯이 鳳凰里 안골部落의 北쪽 山에 위치하였는바 이 마을 앞을 흐르는 磨崖천이 漢江에 이르기전 東쪽으로 구부러지는 모퉁이에 거의 二等邊三角形 모양의 낮은 山이 솟아 있어 이를 속칭 「해골산」이라고 한다. 동리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해가 뜨는 고을의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山名이라는데 이 山기슭의 바로 磨崖천변에는 「능바위」라 일컫는 큼직한 바위가 있어 인근 여러 부락에서 노리꾼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한다. 친렵꾼들도 많고 밤이면 달빛이도 한다는 것이다(圖四 참조).

磨崖천 제방에서 「해골산」을 바라보아 산봉우리 중심부를 향하여 평지로부터 약 五〇m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중턱 못미처에 거대한 岩壁이 있다. 이 岩壁에 佛·菩薩群이 彫刻되어 있는바, 자연의 岩面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全面은 약간 비스듬히 傾斜를 이루었다. 그리고



圖3 磨崖半跏像 및 佛·菩薩群 (1978. 12. 2 發見 당시)

岩壁 위에는 一大岩盤이突出되어 있으므로 또한 天然의 蓋石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 造像群은 岩面의 向대로 東南向하였는데 바로 눈밑에는 磨崖천이 흐르고 넓은 磨崖들 넘어 東쪽으로는 멀리 漢江이 구비쳐 보인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골 깊숙히 長尾山의 잣고개 넘어로 塔坪里 일대가 짐작된다. 이렇게 視野가 넓게 展開되는 이곳 天然의 位置는 마치 雲上界에서 衆生을 굽어보는 것같이 역시 老人들의 叡智에 감탄할만한바 이렇듯 眺望이 絶佳한 位置를 택하고 있음은 충청남도 瑞山郡의 雲山磨崖三尊像이나 경상북도 軍威郡의 八公山三尊石窟과도 같다

고 하겠다(圖二、五、참조).

넓이 약 五m、높이 一·七m(노출된 부분)의 岩面에 佛·菩薩群을 陽刻하였는데 東편에는 半跏思惟像을 중심한 菩薩들의 一群이 있고 그 西편에 如來坐像과 供養像이 별도로 彫刻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위에 얹혀 있는 天然의 蓋石은 넓이 약 五·二m의 큼직한 岩石으로서 突出部가 二二cm ~ 七〇cm 가량 됨으로 諸尊像에 雨露를 막아주는 足하다(圖

六참조).

半跏像을 중심한 菩薩群은 東편으로부터 보아 菩薩立像 一軀가 있고 다음에 主尊으로 半跏思惟像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菩薩立像 四軀가 배치되어 있어 도합 六軀가 造像되었다(圖七참조).

전체를 蓮華座위에 奉安한듯 넓게 펼쳐진 蓮華座를 이루었는데 華奢한 蓮瓣이 아니고 主尊 蓮華座의 下端部로부터 여러줄기가 派生된 연줄기에 간혹 연봉이 보이며 脇侍菩薩들에는 연줄기로부터 臺座를 올리고 있다.

主尊인 半跏像은 외쪽 발을 垂下하여 蓮華座위에 앉았고 오른쪽 발은 왼쪽 무릎위에 올려놓아 전형적인 半跏坐를 이루었으며 오른쪽 손은 들어 人指와 中指를 오른쪽 볼에 가깝게 대고 藥指와 小指를 구부림으로



圖4 鳳凰川邊의 햇골산(↓표가 佛·菩薩群의 位置)



圖5 磨崖群앞에서 南쪽 안골部落을 바라봄

西편의 脇侍菩薩도 頭像이 완전히 冠이 되어 華冠이나 相好 등 각부분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臺座역시 東편의 脇侍像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연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正面한 立像으로 양쪽 팔을 구부려 손을 앞으로 뻗어 臍前에서 합장한듯한데 팔은 東편 菩薩보다 강하게 구부러져 天衣가 길게 흐르고 또한 옆으로 펼쳐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양쪽 어깨부분으로부터 내려진 璎珞이 X자로 교차되어 무릎까지 彫飾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다.

半跏像과 西편 脇侍菩薩과의 사이에 또 하나의 菩薩像이 彫刻되었는바 立像으로 추측되나 上半身만을 나타내고 있다. 머리에는 華冠이 뚜렷하고 冠帶가 길게 어깨위까지 내려졌다. 相好는 가름한 편으로 양쪽 눈과 코 입등이 뚜렷하다. 양쪽 팔과 天衣가 어렴풋할뿐 확실하게 드러나 있

또 또한 전형적인 思惟形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왼쪽 무릎위에 올려놓은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는데 五指의 彫刻이 뚜렷함과 오른발의 寫實的인 표현은 주목된다. 頭部는 크게 과손되어 相好와 寶冠等 頭像의 일체를 알수 없음이 유감스러운데 다만 양쪽 어깨 위까지 길게 느리워진 것이 冠帶가 아닌가 한다. 上半裸身에, 양쪽 어깨위의 衣端은 뚜렷하며 榻座에 衣紋이 조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圖八참조)

半跏像의 東편 脇侍菩薩도 頭像이 크게 과손되어 各部를 전혀 알 수 없다. 圓錐形을 거꾸로 놓은 듯한 上廣下促形의 三國期典型的인 臺座위에 正面한 立像인데 이 臺座는 同磨崖群 蓮華座의 연줄기에 그 下促部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팔을 구부려 양쪽 손을 앞으로 뻗어 臍前에서 합장하고 있는 듯하며 天衣는 길게 흘렀는데 X자로 교차된 璎珞은 양쪽 무릎까지 彫飾되었다.

지 않아서 분간할 수 없다.

西편 脇侍菩薩의 西편 옆으로 二軀의 菩薩立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兩軀도 脇侍菩薩과 같은 형태로 연출기에 연결된 上廣下促形의 三角臺 座위에 正面하여 서 있다. 바로 옆의 菩薩立像은 直立한 자세가 아니고 바로 옆 東편의 脇侍菩薩과 主尊인 半跏像을 向하려는 듯 胴體를 東쪽으로 약간 틀고 있음이 확실하다. 머리에는 寶冠을 쓰고 그 冠帶가 길게 어깨까지 흘렀으며 相好는 전면이고 顔面에는 양쪽 눈과 코 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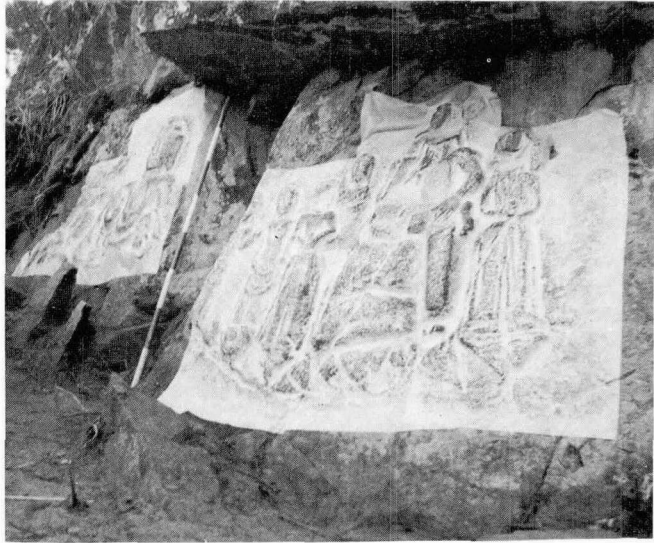


圖 6 半跏像 및 佛・菩薩群拓本



圖 7 半跏思惟像과 菩薩群 拓本

珞도 부분적으로 흔적이 뚜렷하며, 양쪽 팔에는 腕釧의 장식이 보인다. 相好는 正面正視하였으나 兩手を 東편으로 돌리고 供養하는 자세와 寫實的인 그 彫刻手法가 주목된다.

이상의 六軀로 一群을 이룬 바로 西편으로 岩壁이 크게 파손되어 있고 그다음 岩壁으로 연결되는 岩面에 현재 如來像과 그의 供養像이 彫刻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시 본시 三尊이었던 것인데 岩壁이 파손되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西편의 供養像과 대칭으로 東편

의 각부분의 조각이 잘 남아 있다. 通肩한 衣文은 圓弧를 그리면서 臍前에까지 흘렀는데 이로 부터 무릎위까지에는 太彫로 더욱 큰 圓弧를 數條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天衣자락이 양쪽 옆으로 흘러 내렸는데 양쪽 손은 이 天衣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맨발의 菩薩立像은 臺座가 연출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나 岩壁의 파손으로 확연하지 않다. 正面直立의 立像이나 양쪽 팔을 들어 東쪽으로 돌려 구부려서 양손에 각각 寶珠形을 받들고 있는데 이 모습도 역시 主尊인 半跏像을 向한 供養의 자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머리에는 華冠을 써서 그 冠帶가 길게 흘렀다. 相好는 역시 가름한 편이며 양쪽 눈과 코 입이 整齊되어 있다. 胴體에는 天衣의 조각이 분명하고 瓔



圖8 磨崖半跏思惟像 拓本

에도 脇侍菩薩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나 함께 破佛 된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는 것이다.

현재 如來像은 正面하였고 그 西편쪽으로 如來像을 向한 供養像이 배
치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下部에는 獅子一座가 彫刻되어 있다(圖九
참조).

主尊인 如來像은 주변 諸像의 配置와 岩面의 상태 등으로 보아 坐像으
로 추측된다. 素髮의 머리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の 표
시가 없으며 양쪽 귀가 머리부분으로부터 양쪽 어깨위까지 길게 흘러서
위엄이 한층 더하다. 通肩한 法衣는 가슴에서 U字形을 이루었는데 바그
밀으로 平行한 圓弧의 衣文이 太彫되었다. 手印은 古代 如來像들의 通
印인 與願 施無畏印을 結하고 있는데 두껍게 조각된 衣文이 양쪽 손목에
도 걸렸으며 양쪽 팔에도 衣文이 나타나 있다.

西편의 脇侍菩薩坐像은 主尊인 如來像을 向하였으며 東쪽을 向한

右側面像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 다리를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
은 半坐勢의 供養像인데 오른쪽 팔을 구부리면서 들어 오른손에 寶珠形
을 받들고 있다. 머리에는 華冠을 썼으며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다. 胴
體에는 天衣의 주름이 보이고 허리에는 띠를 둘러는데 큼직한 環飾이 있
어 이로부터 길게 흘러내린 허리띠의 주름과 끝매디가 흥미롭게 표현되
었다. 왼쪽발을 세움에 따라 왼쪽 발뒤꿈치를 들은것도 주목되려니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발을 일구어 세운 발뒤꿈치와 발가락 등의
표현이 더욱 주의를 끈다.

獅子像은 품어앉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西편 供養像쪽으로 취
하고 있으나 고개를 돌려 顔面은 主尊쪽을 向하고 있다. 後尾쪽이 파손
되고 各部에 磨損이 심하여 細部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옹크린 胴體는 뚜
렷하고 구부린 足部는 어림없다.

이상 鳳凰里 햇골산 중턱 가까이 岩壁에 彫刻된 磨崖半跏像과 脇侍菩
薩群, 그리고 如來坐像과 供養像 등 八軀의 佛·菩薩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모두 彌勒과 如來의 兩像과 그 脇侍菩薩들을 표현한 것으로 추
정되는 바우선 半跏思惟像의 형태와 脇侍菩薩들의 相好와 天衣 및 교
차된 瓔珞, 특히 연출기에 연결된 古式의 臺座들은 三國期의 造成으로
推定함에 족하다. 各菩薩의 가름한 相好는 高句麗佛에서 느끼는 인상
이며 上廣下促形의 臺座는 高句麗 金銅佛臺座의 上臺를 그대로 옮긴것
 같아서 더욱 주목된다. 그리고 菩薩들에 장식된 瓔珞은 三國期의 造成
의 菩薩像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如來像에서는 큼직한 肉髻와 양쪽 눈두덩이 수북한 점, 그리고
길게 내려진 양쪽귀와 목에 三도가 없는 점 등이 주목되며 당당한 양쪽
어깨와 가슴, 與願 施無畏印의 古代의 通式, 太彫의 法衣, 특히 供養像
에서의 環飾과 腰帶의 처리 등이 三國期 佛·菩薩들에서 찾아볼 수 있
는 樣式 手法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彌勒 如來 兩佛·菩薩群에서의 모든 樣式과 彫刻手法을 살
펴 보았을 때 이들 磨崖佛·菩薩群은 六〇〇年頃 三國期에 造成된 것으



圖9 磨崖如來坐像과 供養像

로 推定된다. 그러나 三國중 어느 나라의 工匠에 의한 造像들인지 그 소 속국적에 대해서는 이 磨崖群 자체의 보다 세밀한 검토와 주변일대의 遺蹟遺物の 종합적인 조사 및 역사지리적인 배경등이 깊고도 폭넓게 연구 되어야만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各佛·菩薩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cm)

半跏思惟像 全高一三二、頭高二六、東廂脇侍菩薩立像 全高一〇七、頭高二一、肩幅一七、胸幅一〇·五、西廂脇侍菩薩立像 全高九五、頭高一

九、肩幅一九、主尊사이의 菩薩 現高四七、頭高一七、肩幅一五、西廂菩薩立像 全高八四、頭高一七、幅一五、西端菩薩立像 全高六九、頭高一七、肩高一九、臺座幅一五(二一)。

如來像 現全高六一、頭高三四、肩幅六二、胸幅二七、供養像 全高七八、頭高一五、肩幅一八、寶珠徑七、獅子像三八。

三、磨崖如來坐像

序頭에서 言及하였듯이 앞에서 살펴본 八軀의 磨崖佛·菩薩群은 存在를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소개하려는 이 磨崖如來坐像을 찾으러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들어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中原郡 文化公報室의 金禮植室長이 필자에게 안내해 주던 佛像이 바로 이 磨崖如來坐像인 것이다.

이 磨崖佛은 前記 磨崖佛·菩薩群에서 西쪽으로 약 五〇m 되는 곳에 위치하였는바 두곳이 거의 같은 높이의 위치로서 平行으로 來往할 수 있다. 佛·菩薩群에서 오히려 오기가 쉬운데 東東南向한 巨大한 岩壁(높이 二·六m 넓이 七·六m)에 如來坐像을 陽刻하였는바 岩面의 方向을 따라 이 磨崖如來坐像도 거의 東쪽을 向하고 있다.

岩面이 層段形으로 구성되어 있는듯 層層이 많은 龜裂이 있고 곳곳에 파손이 심하여 磨崖佛의 各部에도 磨損이 심하다.

結跏趺坐한 양쪽 무릎은 유난히 廣大한데 蓮華座 등 臺座의 시설은 없는 것 같다(圖 一〇、참조)。頭像의 寶髮은 螺髮이 분명하며 肉髻가 표시되었다. 相好는 圓滿하나 머리의 흔적이 보이고 양쪽 눈과 코 입 등에도 磨痕이 역여하다. 그러나 눈두덩이 두툼하여 古式의 표현임은 분간할 수 있다. 양쪽 귀가 짧은 편이며 목에는 三道의 표시가 없다. 法衣는 通肩한 것으로 짐작되나 岩面 자체의 龜裂과 파손이 심하여 衣文들이 확인하지 않다.

手印은 오른쪽 팔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五指끝이 보이고 왼손은



圖10 磨崖如來坐像

은五指를 내려 外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與願 施無畏印을 結하고 있음이 확실한데 이러한 印相은 古代 三國期부터의 通印인 것이다.

光背는 별다른 身光의 표시는 없으나 머리 주변에 化佛들이 彫刻되어 頭光은 뚜렷하다. 化佛은 左·右 대칭으로 양쪽에 二座씩 四座와 頂上에 一座로 도합 五軀가 배치되었는데 모두 무릎을 약간씩 들은 듯한 安坐形이며 양쪽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다.

이 磨崖佛은 當당한 양쪽 어깨와 가슴, 그리고 古代佛像의 通印을 結

한 점, 相好에 있어서 눈두덩의 표현 등은 더욱 古式이라 하겠는바 이러한 모든 樣式과 各部の 彫刻手法를 종합해 볼 때 이 如來坐像의 造成年代는 統一新羅初期인 七世紀後半으로 잡아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

各部の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cm).

坐像 現全高二〇〇、膝幅二二〇、膝高五七、頭高四七、肩幅九〇、胸幅四三、左手長三一、化佛 全高三四、膝幅一七、頭高一、頭光幅추정一〇〇.

현재 이곳 磨崖如來坐像의 바로 앞에는 雜石으로 石壇을 쌓아 佛供을 드렸던 흔적으로 燈燭을 밝혔던 자취가 몇곳에 남아 있다.

그리고 앞쪽은 東편의 佛·菩薩群과는 달리 넓직한 臺地도 있어 佛供客들의 集合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앞쪽과 臺地 부근에서는 瓦片과 磁器片을 상당수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平瓦片들은 古式이 많아 이곳에 前室이나 혹은 建物이 오래前부터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圖一一 참조).

한편 이곳에서 수집한 磁器片들은 모두 白磁片들로 점시 종지 대접들의 파편인데 朝鮮後期作들로 보인다(圖一二 참조). 洞里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先代는 물론 현재도 이곳에 와서 佛供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개진 그릇들은 先代 佛供客들이 사용하던 容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雜石과 雜草木이 우거지고 특히 岩壁의 龜裂이 위험하므로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이 유감된 일이나 조사에 필요한 가설물을 시설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세밀히 조사할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四、주위의 遺蹟遺物과 研究展望

우선 東西 兩쪽의 佛·菩薩 주변부터 살펴 보았을 때 東쪽의 佛·菩薩

群은 앞쪽이 바로 좌벽이므로 별다른 遺蹟은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파손된 頭像들과 菩薩의 面像을 수습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西쪽의 磨崖如來坐像은 주변에서 수습된 瓦片이 모두 灰青色 혹은 赤色이고 線紋 등이 古式을 보이고 있어 造像 당시부터의 建物이 세워졌던 것인지 또는 이 木造建物이 磨崖佛을 保護하기 위한 前室이 있는지 혹은 넓직한 앞쪽 臺地에 小庵子로 세워졌던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소속했던 寺院까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곳 햇골산의 遺蹟을 중심으로 점차 지역을 넓히면서 遺蹟 遺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兩遺蹟 이외에 또 다른 造像의 有·無 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鳳凰里는 물론 안골부락에서도 西쪽의 磨崖如來坐像의 存在는 일찍부터 알고 있어서 때때로 燈燭을 밝히러 올라갔었으나 東편의 磨崖佛·菩薩群에 대해서는 그 存在조차 알지 못하였었기 때문이다.

안골부락의 바로 南쪽 언덕은 현재 경작지로 변하였는바 그 南쪽 기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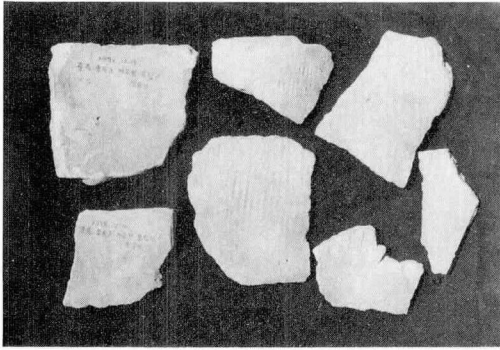


圖11 蒐集한 平瓦片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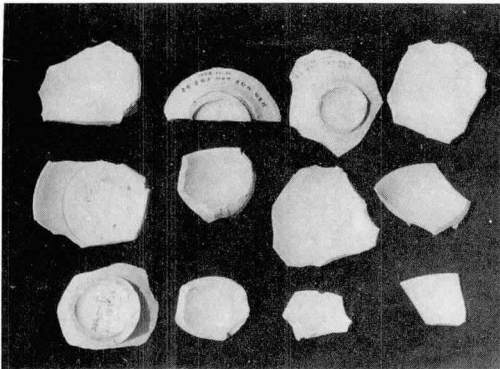


圖12 蒐集한 白磁器片들

에 넓직한 臺地가 있어 石塔材가 흩어졌고 磁器와 瓦片 등이 散亂한 것으로 보아 寺址임이 분명한데 現存 遺物로 보면 後代로 추정되나 그 始 末은 어느 때인지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言及하였듯이 이곳은 바로 漢江에 面하고 있다. 一九七六年 四月에 楊平郡 江上面 漢江流域에서 一尺이나 되는 三國期 造成의 金銅 如來立像이出土된 바 있어 이후 새삼스럽게 漢江流域이 注目되어오던 바 뜻하지 않은 磨崖佛·菩薩群이 나타난 것이다. 안골부락 南쪽의 長尾山에는 山城이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長尾山の 잣고개 넘어로는 可金面 塔坪里 일대가 전개되는데 塔坪里에는 유명한 七層石塔(一名 中央塔)이 있고 주변에서 三國期 高句麗계통의 瓦當과 百濟계통의 瓦當이出土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塔坪里 西北쪽의 龍田里 立石부락에서는 一九七九年 四月에 高句麗石碑가 발견 조사되었.며 바로 인접한 老隱面에서는 日帝侵略期 初에 高句麗作品으로 추정되는 「建興五年歲在 丙辰」銘의 金銅光背가出土된 바 있어 이 지역 일대가 일찍부터 注目되어 왔었다.

그리고 塔坪里와 龍田里 주변일대 野山에는 많은 古墳이 散在해 있는 바 이러한 古墳群은 곧 많은 人口의 集結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과 같은 모든 遺蹟 遺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漢江이 貫流하는 이곳 忠州·中原郡 一圓은 三國期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地域이 있을뿐만 아니라 佛教文化 등 古代文物의 傳來에 있어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요충이라 하겠다. 앞으로 좀 더 많은 時日을 두고 계획적인 세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아직도 미진한 三國期 諸般問題를 그 일부라도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檀國大學校教授)